

대우인 간사관

DAEWOO E&C
MAGAZINE
2020 3 + 4



1 + 2월호 표지 이벤트 당선작

지난 1+2월호 스티커 이벤트 당선작을 소개합니다.
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앞 부천중앙공원을 즐기는 다양한 모습이 돋보이는데요.
3+4월호 스티커를 색칠해 알록달록한 나만의 스티커로 표지를 꾸며 주세요.
개성이 더해진 다양한 응모작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덕그라시움현장 강현호 과장	국내법무1팀 정영진 변호사	노동조합 심상철 과장
대우이 건설 18	대우이 건설 18	대우이 건설 18
대곡소사복선철4공구현장 오동욱 부장	브랜드상품전략팀 최웅철 대리	송도아트포레2차현장 박현철 대리
대우이 건설 30	대우이 건설 36	대우이 건설 36
남제주북합화력 주기기 PJ (구배관라) 박홍근 과장	조달기획팀 홍리경 대리	평택미군독신속소현장 김예섭 대리
대우이 건설 36	대우이 건설 36	대우이 건설 36

표지 스티커 이벤트

동봉된 정대우 스티커를 표지에 자유롭게
붙여 나만의 표지를 완성해보세요!
스티커를 색칠하면 더욱 멋진 표지를 만들
수 있어요.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하나

스티커 표지를 사진으로 찍은 뒤,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려주세요. 업로드 시
게시물에 꼭 #대우건설인 태그를 달아주세요.
그래야 이벤트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둘

스티커 표지를 사진으로 찍은 뒤,
사보 담당자 앞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보내실 때 메일 제목을

[사보 표지 스티커 이벤트]로 달아주는 센스!

커뮤니케이션팀 김민정 대리
minjung.kim@daewooenc.com



18



2



30



26



36

등록일자 1993년 5월 29일
발행처 (주)대우건설
발행인 겸 편집인 김형
담당자 커뮤니케이션팀 김민정 대리
기획·편집·디자인 (주)안그래픽스 미디어사업부
02 763 2303
사진 황규백, 김진술
표지 일러스트 이시누
인쇄 금강인쇄

2	THEME VIEW
	말랑말랑-마시멜로처럼 부드럽게 고무공처럼 경쾌하게
4	THEME POLL
	얼마나 '힘 빼고' 있나요?
10	THEME TALK
	① 우리조직, 정말 잘 지내고 있을까? ② 머리·마음·관계를 말랑하게 - 딱딱한 일상을 바꾸는 3색 말랑법
16	THEME VISION
	성공과 실패의 교훈으로 더 멀리 더 높이 JUMP UP!
18	현장STAR그램
	과천 푸르지오 씨밋
26	선배 돋보기
	조달본부 이호진 본부장
30	정대우로드
	대자연의 숨소리를 듣는 곳, 잠비아
35	WORK & LIFE
	LISTEN TO MY MUSIC
36	취미 유발자들
	오늘밤 디제잉을 허하노라
40	주말에 뭐하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44	내용보고서
	총과 함께 즐기는 홈 트레이닝
48	대우건설 뉴스
	2020년 3+4월 대우건설 뉴스
52	독자후기

폭신한 마시멜로처럼 부드럽게

말랑한 고무공처럼 경쾌하게

변덕이 잦은 변화의 미끄럼틀 안에서, 우리는 민첩하게 몸을 웅크릴 줄도, 가볍게 튀어 오를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각각각색의 수천 명이 모인 조직이 몸을 빠르게 움직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조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율이 필요하고, 그 규율은 조직이 무게감을 갖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조직문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원이 당연하다고 믿는 신념과 가치관, 행동 양식이 있어야 여러 명의 힘을 한 데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헛갈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게감과 딱딱함의 차이입니다. 중심이 바로 선 규율과 조직문화는 우리를 외부로부터 보호하지만, 변화할 줄 모르는 경직된 사고와 팍팍한 관계는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오르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상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에서 어떻게 창의성과 개개인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 단계를 거쳐 승인받아야 하는 조직이 어떻게 민첩해질 수 있을까요. 좋은 조직문화와 나쁜 조직문화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가는 조직과 따라가지 못하는 조직이 있을 뿐입니다. 이번3+4월호에서는 봄을 맞아 몸과 머리에 힘을 쭉 빼고 더 경쾌하고 말랑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연함'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04 THEME POLL ————— 얼마나 '힘빼고' 있나요?

10 THEME TALK ————— ① 우리 조직, 정말 잘 지내고 있을까?
② 머리·마음·관계를 말랑하게-
딱딱한 일상을 바꾸는 3색 말랑법

16 THEME VISION ————— 성공과 실패의 교훈으로
더 멀리 더 높이 JUMP UP!

얼마나 '힘 빼고' 있나요?

유연한 생각과 부드러운 태도는 타인은 물론 나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굳은 표정과 어깨 힘을 풀어보자. 대우건설인 200명에게

'우리를 딱딱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 물었다.

내 머리와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주범! 회사 내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은?

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의 90%가 '직장생활을 하며 화병을 앓은 적 있다'고 한다.

그 화병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인간관계. 대우건설인들의 응답 역시 다르지 않다.

36%의 응답자가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간관계'를 꼽았으며, '타 부서와의 협업'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의 퇴사 원인 1위가 '사람이 싫어서'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조직 내
인간관계
36%

타 부서와의
협업
27%

직무
자율성 부재
17%

과도한
업무 분담
14%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회사에 도입했으면 (혹은 더욱 발전시켰으면) 하는 사내문화는?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발전시켰으면 하는 시스템으로는

'부서에 한정 짓지 않고 업무 중심으로 협업하는 문화'가 1위를 차지했다. 기존의 방식이나

부서별 이해관계에 얽매이기보다는 '일의 질'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출퇴근 및 점심시간 유연화', '직급 및 호칭의 단순화'가 차례로 2, 3위를 기록했다.

출퇴근 및
점심시간 유연화

30%

직급 및 호칭의
단순화

19%

직원 소통
행사 증대

6%

부서를 뛰어넘는
업무 중심의
협업 증대
42%



직장 내 상하관계를 더욱 딱딱하게 만드는 마법의 문장 '나 때는 말이야~'. 최근 일주일간 내가 마신 '라떼'는 총 몇 잔?

광고를 통해 널리 알려진 유행어 '라떼는 말이야'는, 기성세대가 후배에게 '나 때'를 강조하며 과하게 훈수 두는 것을 비꼰 말이다. 세대 사이에 건강한 긴장감이 조성되기도

했으나, 선배의 걱정과 우려를 '라떼<나 때>'라 쉽게 비하하는 경우도 생겼다.

윗사람을 다짜고짜 '꼰대'라고 몰아가거나, 아랫사람을 무조건 '요즘 애들'이라

정의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0잔, 라떼는
취향이 아니어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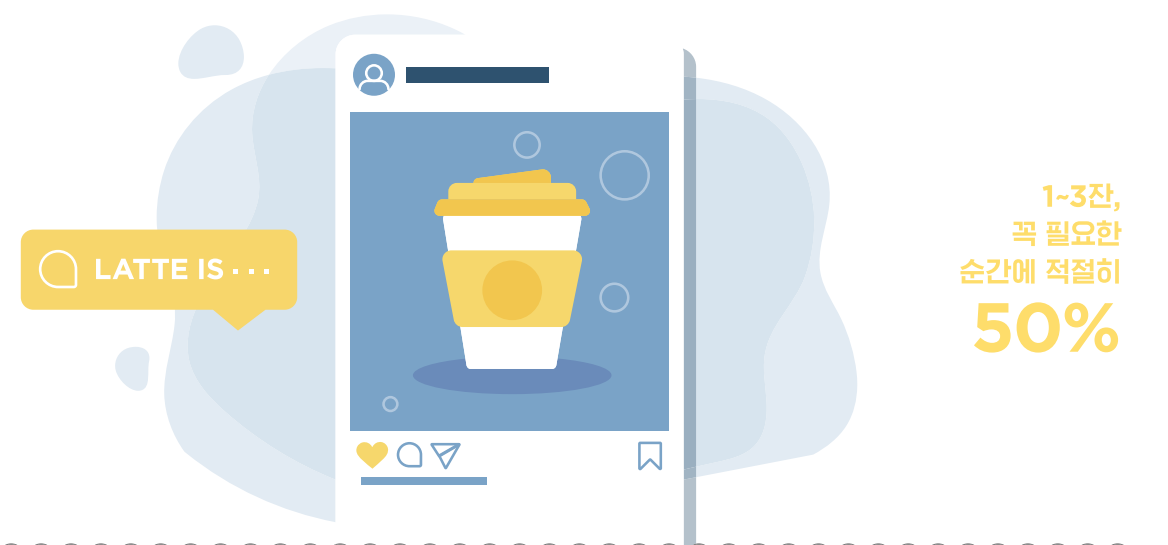
38%

3~7잔,
라떼가 최고야

6%

셀 수 없음, 라떼
없이는 못 살아

5%



1~3잔,
꼭 필요한
순간에 적절히
50%

직장 내 선배 및 후배들과 세대 차이를 느낄 때는?

세대 차이를 느끼는 순간을 묻는 질문에는 '업무처리 방식이 다를 때'가 1위를 차지했다. 직원 역량개발 회사의 리서치 디렉터 댄 쇼벨은 세대별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유를 '사용 기술의 차이'라 정의했다. 밀레니얼 세대는 대면보다 기기 활용을, 이메일보다 채팅이나 메시지를 더 선호한다는 것. 그는 구성원들의 사용 기술이 다르더라도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고, 각자의 강점을 활용할 기회를 찾는다면 세대융합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업무처리
방식이
다를 때
41%

회식 등 친목 도모
모임에 대한
생각이 다를 때
37%

패션이나
식습관 등 생활
스타일이 다를 때
11%

컴퓨터, SNS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사용 능력이 다를 때
9%



동료와의 불화 발생 시 관계 개선을 위해 하는 노력은?

동료 간 합을 맞추어가는 과정에서 불화가 생기기도 한다. 대우건설인들은 동료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응답자의 45%가 '화해를 위한 자리를 따로 마련한다'고 답했다. 이때 가장 주의할 점은 단연 태도다. 상대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 마음을 담은 짧은 편지나 작은 간식도 관계의 윤활제 역할을 한다.

신경은 쓰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개선
되기를 기다리는 편

30%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음

17%

타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해 관계 회복

6%



화해를 위한
대화자리(술, 식사,
티타임) 마련
45%

보완하고 싶은 나의 유연성 영역은?

보완하고 싶은 유연성 영역을 묻는 질문에는 '창의력'이 1위를 기록했다. '문제해결력', '대인관계력', '이해력'이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만약 내게 필요한 능력이 지금의 모습과 멀게만 느껴진다면 보다 많은 동료와 '말랑한 관계'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동료와의 친근하고 편안한 소통을 통해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유연한 업무처리와
임기응변, 문제해결력

29%

내가 바로 이 구역
마당발, 대인관계력

21%

상대방과 나를 위한
이너피스, 이해력

15%



생각과 관점을
다양하게,
창의력
34%

... 직장 내에서 세대 차이를 느낄 때는?



‘옛날 이야기’의 주제가 다들 때. 제가 초등학교 때는 반 정원이 30명이었는데, 팀장님 때는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오전반과 오후반이 아예 나뉘어 있었다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ID : 옛날옛적엔



노래 취향이 너무 달라요. 특히 팀장님과 신입사원의 18번은 장르부터 극과 극!

ID : 코인노래방덕후



‘나 때는 말이야’ 등 선배의 조언이나 충고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예전 것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는 회사의 역사와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ID : 선배의마음



즐거보는 TV 프로그램이 확연히 갈릴 때! 마치 예전 무한도전과 스타킹의 대결구도 같을까요?

ID : 방구석1열



조직과 일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클 때. 세대 간에 오해가 더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ID : 조직그리고나

... 우리 회사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했으면 하는 조직문화는?



복장의 완-전 자율화. 저는 찢어진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남자라고요.

ID : 청바지사랑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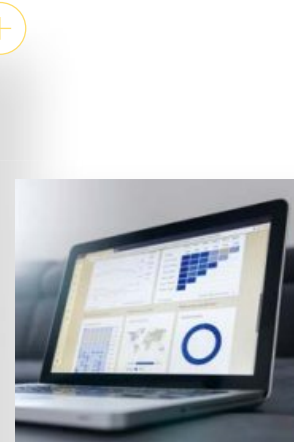
이전에 했던 방법이 전부 정답일까요? 몸 담고 있는 곳을 벗어나 제3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ID : 우물밖개구리



전사적으로 다른 부서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업무교류를 하다 보면 마음으로는 이해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벽들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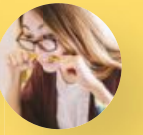
ID : 옆부서공감미



보고양식의 자율화를 꿈꾸며!

ID : 아임프리템

회사 내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은?



“제가 급해서...”
옆 부서와 외주업체들의 끝없는 자료요청!
아아, 전화 받다 하루가 다 가버렸습니다.



업무 결정권! 수행자에게 더 많은 결정권을 주셨으면 해요. 그럼 지금보다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니 뭐니 해도 인간관계.
사회초년생에게 사람 문제는 너무 어렵기만 하네요.



본사와 현장의 입장차이?
본사는 현장을, 현장은 본사를 조금씩 더 이해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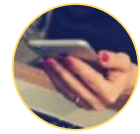
프로젝트별 맞춤형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인력급구! 저희 팀 인원 보충이 필요합니다!



흡연하시는 분들~ 회의 전에는 양치 꼭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을 미루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책임도 함께 미룬다는 게 문제 같네요.



변덕스러운 상사의 지시.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어?”,
“이거 바꾸는 거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등의 발언, 괴롭습니다.
특히 시킨 일 기억 못하시고 업무 지시를 반복하는 태도는 참아주세요~!

우리 조직, 정말 잘 지내고 있을까?

직급을 없애고 호칭을 파괴한다고 해서 조직문화가 달라지지는 것은 아니다.

사무실을 자율 좌석제로 바꾸고 조직을 매트릭스 구조로 바꾼다고

해서 수십년 간 이어온 일하는 방식과 문화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조직문화는 어떨까?

글. 상호이재 <도서<네이키드 애자일> 저자, 어니스트펀드 피플실 실장>



“

아직도 어떻게
문화를
변화시키고,
혁신과
연결시킬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지하다.

”

원인은 세대의 충돌이 아닌, 조직문화에 있다

조직문화에 대한 기업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조직문화’를 구글에 검색해보면 10여 년 전인 2008년, 키워드 검색량은 약 6만 5천여 건(국내 범위, 1년 기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8년에는 33만 건으로 훌쩍 증가했다.

더 놀라운 것은 한 해 동안의 변화다. 2019년 검색량은 무려 2천 3백만 건으로, 지난 10년 동안보다 한해 동안의 증가량이 훨씬 높았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조직문화는 10여 년 전보다 얼마나 질적으로 변했을까?

우리 주변의 일터를 둘러보자. 혹시 관료주의, 직위에 관계없이 생산되는 궂대들의 나르시시즘, 번아웃, 혐오와 분노, 무관심 등 일터에서 나타나는 각종 병리적 현상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지는 않는가? 조직과 문화에 관련된 논의는 꾸준히 활발해졌지만, 정작 우리 문화가 그 양적 논의만큼 질적으로 변화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우리는 아직도 어떻게 문화를 변화시키고, 혁신과 연결시킬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지하다.

문화란 단순히 교육, 캠페인, 복지 등의 소프트 프로그램이 아니다.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 차원의 총체적 사고와 변화관리가 필요하다. 조직문화 혁신은 리더십과 조직 구성원의 공감, 그로 인한 전략과 구조, 프로세스가 총체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분명한 리더십과 강력한 원칙으로

새로운 경영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리더십이다. 문화 혁신은 리더십 그룹이 주도해야 한다.

혁신을 위해 필요한 문화, 가치, 행동을 리더 스스로 깊게 고민하고 실천하며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리더십의 피상적 선언, 담당자로서의 역할과 책임 전가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 수 없다. 변화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균열, 조정,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결국 이를 주도하는 것도 또 위임하는 것도 결국 리더십이다.

문화 경영을 이룬 기업들이 쌓은 또 다른 성장 노하우는 무엇일까? 그들의 공통점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을 세웠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헤지펀드 브릿지워터 사례를 보자. 브릿지워터는 16가지의 단순한 원칙 기반으로 조직과 시장의 복잡성에 대응하고 있다. 브릿지워터가 세운 회사의 제1원칙은 극단적 진실성과 투명성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이 원칙은 다섯 가지 부제로 제시된다. 브릿지워터가 수립한 모든 프로세스와 업무방식은 공개 가능해야 하며, 관리자들은 모든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동시에 동료에게 솔직하게 피드백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솔직함을 명분으로 감정적이고 편파적 태도를 취하는 것, 자신의 솔직함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태도는 배격된다. 이 다섯 가지 부제는 원칙이 왜곡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면서도, 여러 상황 및 다양한 맥락 안에서 응용할 수 있게 한다.

세월은 흐르고 모든 것은 변한다

기존의 원칙에 얽매이지 않는 태도도 중요하다.

과거에는 한 명 한 명의 특출난 인재, 슈퍼스타가 중요했고 이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조직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면, 문화 경영에서는 협력할 수 있는 인재, 즉 조화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때문에 현재 조직 구성원들이 어떤 철학과 정신을 바탕으로 직장생활을 해나가고 있는지, 동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파악한 뒤 이를 고려해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히스토리의 축적이다.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원칙과 시스템을 설계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은 이상과 다를 수밖에 없다. 결국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은 디테일한 상황 속의 실제 의사결정과 행동들이다. 프로젝트와 직원들의 사례를 꾸준히 기록해 데이터로 삼고 분석해야 한다. 조직문화 혁신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일관된 방향성과 원칙을 기반으로 시행착오에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수정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혁신이다. 그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 시간이 흐르면, 결국 그것이 새로운 문화 경영의 히스토리, 헤리티지가 되는 것이다. 경영과 조직문화의 모든 것은 디테일이다.

“

일관된
방향성과
원칙을 기반으로
시행착오에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수정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혁신이다.

”

머리·마음·관계를 말랑하게 딱딱한 일상을 바꾸는 3색 말랑법

현대인은 매일 스트레스에 몸을 던진다. 열심히 일해도 인정받기 쉽지 않고, 조직생활이나 인간관계도 무엇 하나 쉬운 게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딱해진 두뇌, 딱딱해진 마음, 날카로워진 관계를 부드럽게 바꾸어주는 적절한 윤희유다.

“유연한 사고와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뇌 휴식을
취할 때다.”

일단 뇌를 디폴트 상태로 바꿀 것

유연한 사고는 여러 발상을 떠올리고, 문제를 재구성하며, 뿌리 깊게 박힌 고정관념을 버리고 마음을 열게 한다. 만약 당장 유연한 사고와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지금이 바로 **뇌 휴식**을 취할 때다. 미국의 뇌과학자 마커스 라이클 박사는 사람이 아무런 인지 활동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특정 부위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DMN)’라고 명명했다. DMN이 활성화되면 창의성이 생겨나며 특정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잇달아 발표됐다. 그 특정 부위는 생각에 골몰할 경우 오히려 활동이 줄어들기까지 했다. 목욕탕에서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유레카를 외친 아르키메데스와 사과나무 아래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역시 책상 앞에서가 아닌 휴식을 취하며 성과를 얻은 경우다. 물론,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공부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는 활동도 필요하다. 우리의 마음에 따라 분비되는 호르몬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온몸의 세포 반응도 달라지는데, 그 대표적인 호르몬이 세로토닌이다. 세로토닌은 평상심 즉, 잔잔한 행복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다.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려면 2,500Lux 이상의 조도가 필요하다. 이는 **아침 햇살**을 5분만 쬔어도 충분한 양이다. **씻기, 걷기, 호흡** 등의 모든 리듬운동도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키는 훌륭한 활동이다. 머리가 복잡하고 일이 풀리지 않는다면 벌떡 일어나 천천히 호흡하며 공원을 거닐어보자. 한 걸음 한 걸음 땅을 내딛는 발걸음에 집중하면서 말이다. 밖으로 나가면 당신 뒤통의 햇빛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몸의 힘이
근육에서 나오듯,
마음의 힘은
회복탄력성에서
나온다.”

마음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면

특특 먼지를 털어내듯 역경을 딛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대체 어떤 힘을 지닌 걸까?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과감하고 도전적이어서 늘 새로움을 추구한다. 반면 회복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실수를 과도하게 두려워하며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기보다는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다. **회복탄력성**이란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힘을 일컫는 말로, 심리학에서는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의미한다. 몸의 힘이 근육에서 나오듯, 마음의 힘은 회복탄력성에서 나온다. 회복탄력성을 높이려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훈련이 필요하다.

회복탄력성을 키우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우선 **습관적으로 미소** 지어보자. 사람의 뇌는 자신의 얼굴 표정에서 스스로 마음 상태를 감지한다. 상황을 **낙관적으로 스토리텔링**하는 습관도 필요하다. 역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마음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매일 짧게라도 **감사일기**를 쓰는 것을 권장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심신을 편안하고 이상적인 상태로 유지시켜 준다.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분석**하고 노하우를 만들어나가는 습관도 필요하다. 실패해도 보완해나가면 된다고 확신하면서 말이다. 바닥을 딛고 다시 튀어 오를 수 있는 마음, 회복탄력성이 있다면 일상에서의 자잘한 시련을 잘 견뎌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 닥칠지 모를 커다란 역경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다.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말 한마디에
달려 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에 모두가 즐거워진다

직장은 즐거운 놀이터가 되기도, 정신 없이 달려야만 살아 남는 지옥이 되기도 한다. 두 가지 길을 나누는 출발점은 바로 대화법이다. 조직 생리에 부합하면서도 상사, 동료, 부하직원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말랑말랑하게 말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동료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는 **“바쁘겠지만”, “미안하지만”**이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해보자.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할 때 역시 마찬가지다. ‘일 시키면서도 눈치 봐야 해?’라는 생각은 선후배 관계를 더욱 딱딱하게 만들 뿐이다. 상사의 권위는 평소 태도와 책임감에서 나오는 것이지 말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업무 협조 메일에서도 **쿠션어**가 큰 몫을 한다. 보통 업무 메일은 팀 혹은 부서의 관리자가 참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금일 보내기로 한 자료가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상황이라 양해 메일 드립니다. 익일 오전까지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혹시 일정이 너무 지체된다면 현재까지 취합된 자료라도 우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검토 부탁드립니다.” 위의 예시에서처럼, 확정하듯 끝내지 않고 **청유형**으로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같은 내용의 메일을 단정하는 형태로 보냈다면, 수신자 입장에서 통보 받았다는 느낌을 먼저 받을 것이다. ‘피하고 싶은 사람’에서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말 한마디에 달려 있다.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생기고, 그 호감이 친밀감으로 이어지면 그 관계는 갈등 상황에서도 쉽게 깨지지 않는다.

“

상대방이 무엇을
알고 있으며,
어떤 상태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



나를 넘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마지막으로, 생각과 관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인간은 모두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뉴턴이 실시한 한 실험을 예로 들어보자. 그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사람이 리듬에 맞추어 책상을 두드리면, 다른 그룹의 사람이 오직 그 리듬을 통해 노래 제목을 맞추도록 했다. 미국인이려면 누구나 알만한 120곡으로 실험을 실시했지만 정답은 오직 3곡뿐이었다. 이 실험에서 흥미로운 점은 리듬을 두드린 그룹의 입장이다. 그들에게 상대 그룹이 노래 제목을 맞추려 했을 문장, 50%라고 대답한 것이다. 박자를 두드리는 사람은 머리 속으로 노래를 계속 떠올리지만, 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저 ‘딱딱’거리는 마찰음으로 들릴 뿐이다. 엘리자베스 뉴턴은 박자를 두드리는 사람을 두고 ‘지식의 저주’에 빠진 것이라 표현했다. 이 저주에 빠지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된다.

일상 그리고 회사에서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대부분 내 중심으로 사고하며, 상대방의 생각과 관점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 못한다. 생각과 관계의 유연성을 높이고 싶다면 우선 상대방이 무엇을 알고 있으며, 어떤 상태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참고도서 <창의력 시크릿>, <회복탄력성>, <일취월장>,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BONUS TIP
직장생활을 즐겁게 만드는
‘말랑 소통법’

1. 칭찬으로 시작하라



독설가에게는 사람이 따르지 않는다.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부드럽게 열 수 있는 의사소통 언어다. 미숙하다면

연습하고 또 연습하라. 2. ‘너’ 말고 ‘나’를 이야기하라



“박 대리는 항상 부정적으로 말하더라”, “김 사원 또 실수했구나!”보다는 “내

생각에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 “혹시 내가 해결해줄 것 있어?”라고

말하자. 상대를 꼭 집어 문장의 중심에 세우는 표현은 공격당하거나 비난

받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3. 잘 들어라



듣기는 말하기 이상으로

중요하다. “더 얘기해 봐”, “그런 일이 있었다니, 힘들었겠다” 등 격려와 동감의

추임새도 아끼지 말자. 가까이 다가가 앓고 눈을 맞추며 고갯짓하는 등 비언어적

요소를 적절히 사용해 호응하라. 4. 차별대우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원래’는 없다.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담겼다고 하더라도 “원래 다

그래”라는 표현은 ‘너와 이야기하는 게 귀찮다’는 말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리액션이 필요하다. 5. 이기려

하지 마라



화내봤자 나만 손해다. 감정적인 태도는 불필요한

논쟁만 부를 뿐이다.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이 일은 과제이자 성과라는 점을

명심하자. 동료들 이겨보이겠다는 과한 경쟁의식도 필요 없다. 회사에서 오늘의

적은 내일의 동료가 되기도 한다.

성공과 실패의 교훈으로 더 높이 더 멀리 JUMP~~UP

불확실성 높은 경영환경에서 조직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유연성 이전에 필요한 것은 그만큼
내부 역량이다. 탄탄하게 기본을 다진
내부역량을 기반으로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 이에 대한
생각을 플랜트사업지원실 허윤종 상무,
플랜트사업지원2팀 최근석 부장,
발전견적팀 고두호 차장을

나날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내부
역량을 강화해 회사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회사 비전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플랜트사업본부에서는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과 공사 관리 선진화 방안을 통해 본부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 중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진행했던 업무의 개선점을 파악해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수많은 국내외
PJ경험을 매뉴얼화, 시스템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플랜트사업본부의 Lessons Learned
TFT 운영을 말하는 것인가 —** 그렇다.

Lessons Learned도 역량강화의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본부는 2019년 Lessons
Learned TFT를 조직했다. 그동안
본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PJ를 수행하며
여러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쌓아왔다.
Lessons Learned가 ‘교훈’을 의미하듯,
과거의 여러 사례들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성공사례는 현재 진행 중인,
혹은 예정인 PJ에 적용시키고, 실패사례는
업무절차 개선을 통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궁극적으로
향상된 리스크 관리 기법으로, 수행 역량의
고도화를 통해 개선된 수익성은 우리
회사가 ‘Global Top 20’로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Lessons Learned TFT 운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나 —** 아직 성과라고 말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 그동안의 진행 내용으로
답변하자면, 바로콘에 등재된 6,360건의
우수사례와 실패사례 중 중요도가 ‘중’ 이상의
사례 433개를 유형별, 공정별 분석을 통해
총 418개 문항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Lessons Learned의 중재 및 적용의
활성화와 본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
절차서도 만들었다. 이렇게 작성된 절차서와
체크리스트를 ‘나이지리아 Indorama
Fertilizer II PJ’에 시범 적용 중이다.
올해는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 TFT 운영 대신, 정규조직인
플랜트사업지원2팀으로 업무를 이관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소수의 인원으로 사업 절차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 현업과 TFT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에 대한 시간적인 압박이 있었다.
한정적인 인원으로 ‘과연 현실적이면서
효과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도 존재했다. 방향성 선정에서부터
결과 도출에 이르기까지 의심하고 또
의심했던 것 같다. 하지만 본부 내 모든 팀과
현장, 타 조직 유관 부서의 도움으로 기초
작업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체크리스트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플랜트본부 전체 PJ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회사의 경험을 시스템화하는
작업이라니, 보람도 컸을 것 같다 —** 아직
보람을 느끼기에는 좀 이르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우리가 만들어 낸 체크리스트가
현장에 적용되는 게 뿌듯한 건 사실이다. 점차
더 많은 PJ에 적용해 긍정적인 성과가 보이면
좋겠다. 우리의 경험과 의견이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힘들기보다는 의욕이 더
컸던 것 같다. 다르게 말하면 이것도 일종의
보람일 것이다.

아직 갈 길이 남았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 TFT의 첫 시범현장인
‘나이지리아 Indorama Fertilizer
II PJ’의 피드백을 참고삼아 절차서 및
체크리스트 내용 보완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대한 작업이 완료되면 절차서를
등록하고, 중요도 높은 우수 및 실패 사례를
따로 분류해 Lessons Learned 사례집
발간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의 PJ들에 있어 우수사례 적용 및
실패사례 재발 방지 효과성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수행 역량을 강화하고자
이 과제를 시작했다. 다양한 사례에 대한
수집 및 관리와 기록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성과에 대한 임직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민 중이다.
Lessons Learned는 직원 한두 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전사 지식공유
차원에서 바로콘 경험공유 시스템에 다양한
사례가 업로드될 수 있도록, 또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체크리스트가 업무에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

LESSONS LEARNED & CHECK LIST

발전
견적팀
고두호 차장

플랜트사업
지원실
허윤종 상무

플랜트사업
지원2팀
최근석 부장

새 프리미엄의
중심이 되다

과천 푸르지오 씨밋

중앙행정과 국가안보를 고려해 계획된 도시,
과천이 그 이름을 새로이 쓰고 있다. 한때
과천을 대표했던 이미진 행정 중심지 대신
살기 좋은 자연도시로의 탈바꿈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산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도시환경을
뽐내며 새 옷을 갈아입기 시작한 과천.
그곳에 과천 푸르지오 씨밋이 이제 막 모습을
드러냈다.

81.2^m
최고 높이

28^{지상층}
3^{지하층}
32^동

312,637^{m²}
연면적

31^{month}
공사 기간
17.09.01 — 20.03.31

96,128^{m²}
대지 면적





'푸르지오 써밋'만의 감각으로
배어난 외관 디자인과
독특한 단지 배치를 구성했다.

**정점의 프리미엄을 누리다,
과천 푸르지오 써밋**

미세먼지 등의 환경 문제가 부각되면서 맑은 공기가 보장되는 '숲세권'이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예전부터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혀왔던 과천이 다시 주목받는 중이다. 그도 그럴 것이 과천의 녹지율은 85.4%로 여타 신도시와 비교해도 월등히 앞서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0%가 과천을 '전원도시'로, 18%가 '자연도시'로 정의하기도 했다. 이렇듯 거대한 공원을 품은 도시 과천에 새로운 품격과 가치를 담은 과천 푸르지오 써밋이 우뚝 솰았다.

대지면적 96,128㎡, 총 1,571세대, 3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과천 푸르지오 써밋은 뒤로는 관악산을, 앞으로는 양재천을 품은 전형적인 배산임수 단지다. 주변의 자연환경을 넉넉히 감싸 안는 형태에 과천의 주요 교통, 교육 시설과 근접해있는 최상의 입지 조건이 어우러져 그 빛을 발하고 있다. 단지 출입구와 바로 연결되는 4호선 과천역, 도보 이용이 가능한 과천청사역의 더블 역세권과 과천대로,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과천—의왕고속도로의 인접으로

쾌속 교통망을 자랑한다. 또한, 과천초, 과천중, 과천외고 등 도보 이용이 가능한 명문학군의 교육환경과 과천도서관, 과천과학관 등의 우수한 교육문화 환경으로 최적의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과천중앙공원, 서울대공원, 관악산, 청계산 등의 풍부한 자연환경까지 더해져 '고품격 명품 단지'라는 수식어에 힘을 보탠다.

“저희 현장은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으로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중 후분양을 진행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후분양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의 체력과 사업성을 발판 삼아 3월 말, 성공적인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과천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최상층 커뮤니티 시설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하는데 벌써부터 좋은 호응들을 보내주고 계셔서 뿌듯합니다.” 현장을 총괄하는 김영호 소장의 설명이다. 이처럼 교통, 학군, 문화, 생활 인프라 등 부족함 없는 완벽한 조건에 써밋이라는 자부심이 만나 정점의 프리미엄을 보여주고 있다.





푸르지오의 자부심으로 완성된 랜드마크

세상의 중심과 삶의 정상에서 누릴 수 있는 고품격 주거 공간, 씨밋. 과천 푸르지오 씨밋에는 그 이름을 뛰어넘는 자랑거리들이 한가득이다. 한눈에 압도되는 외관, 푸르지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조경, 가치를 극대화한 내부 환경이 그것이다. 특히 과천푸르지오씨밋 현장은 단지 배치와 외관 디자인에서 과천 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했다. 공사를 담당한 나오섬 부장은 “저희 현장은 과천 최초의 커트월룩으로, 보는 각도에 따라 변화무쌍한 외관을 선보였습니다. 모던과 클래식을 콘셉트로 잡아 각 블록마다 다양한 느낌을 연출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외부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뿐만 아니라 서초 등 강남권에 적용됐던 최상층 커뮤니티 시설을 시공함으로써 화려한 외관을 뽐내는 동시에 입주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단지 조성에 힘썼습니다.” 여기에 무장애 계획으로 램프 없는 아파트 출입구와 무장애 공간을 조성해 입주민에게 개방감을 선사했다.

과천명림(果川明林)을 콘셉트로 꾸며진 조경도 과천 푸르지오 씨밋의 큰 특징이다. 씨밋의 중심 광장인 페스타 필드, 사계절 색다른 자연색으로 물드는 포레스트 워크, 관악 능선을 빼닮은 씨밋힐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지에 관악의 명품 숲을 담아내기 위해 충분하다. “씨밋의 메인 광장인 페스타 필드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물과 평원의 느낌을 재현했습니다. 물빛으로 수놓은 햇살 마중길이 환상적인 경관을 내뿜는 공간이죠. 힐링과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약 2.3km의 3색 테마길, 안개분수가 설치된 포레스트 워크를 설치했어요. 물 분자가 분사되면 깊은 숲속의 산책로처럼 몽환적인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조경을 담당한 이미진 대리의 설명이다. “고급 단지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석가산에 ‘씨밋힐’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에 관악산 능선의 기암괴석을 담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사계절 형형색색으로 물드는 씨밋힐은 한 폭의 진경산수화가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조경팀 류승호 차장의 자부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기존 아파트 단지에서는 쉽사리 볼 수 없었던 대형목을 심어 역대급 푸르지오를 완성시켰다.



여타의 푸르지오와는 차별화된 내부 환경도 주목할 만하다. 혁신적인 설계를 통해 전 세대에 4Bay 이상의 구조를 제공했다. 이는 맞통풍과 채광성의 향상은 물론이요, 대부분의 세대에서 관악산, 종암공원 조망을 가능케 하는 전략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또한 유리난간 일체형 시스템 창호를 시공함으로써 세대 내부에서도 자연의 정취를 그대로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세대 내 자연의 가치를 담는 동시에, 이탈리아 및 독일 주방가구와 독일 수전 등 명품 마감재 시공을 통해 또 한 번 가치의 극대화를 꾀했다.

여기에 그동안 과천에서 볼 수 없었던 커뮤니티 시설이 푸르지오의 자부심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 수영장과 골프장, 사우나 등이 포함된 메인 스포츠센터를 비롯해, 키즈&맘스카페, 독서실, 다목적체육관, 암벽등반장, 무인빨래방 등의 시설을 통해 여유롭고 다채로운 생활환경의 프리미엄을 제시했다.



체육관, 수영장, 골프장 등이
포함된 메인 스포츠센터





보다 넓은 창으로 세대 내부에서도 자연의 정취를 그대로 감상할 수 있다.

“이전까지의 푸르지오 씨밋보다 좀 더 특화된 모습의 단지를 구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빼듯한 공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시도해보지 않았던 많은 도전들을 이어온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고생한 만큼 입주 시에 좋은 결과로 보답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호 현장소장



도전과 열정의 집약체

과천에서 상징적인 단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한 과천 푸르지오 씨밋. 그 이면에는 직원들의 치열한 노력이 있었다. 베테랑 직원들로만 꾸려진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번 현장에는 최초로 시도되는, 또 최고의 품질이 요구되는 요소들이 유독 많기 때문이다. “저희 현장에는 스카이 커뮤니티 시설 전용 전용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순수 철골구조에 유리 패넬을 시공해 단지 및 자연경관을 조망하도록 설계되었죠.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서는 거의 시공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설계부터 실제 시공에 이르기까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지만 현실에 반영했을 때 처음 의도한 방향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값진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사팀 이진석 과장의 설명이다. 덕분에 현장에서는 근사한 시공물을 얻었고, 이로써 직원들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입주 후 고객들의 편안한 휴식도 놓치지 않았다. 아파트 민원 중 1순위로 꼽히는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국내 최고 등급의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적용한 것. “보통은 차음재 시공 시 아파트 바닥면의 단차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바로 시공합니다. 하지만 저희 현장에서는 층간 소음 저감 기술이 더욱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바닥면을 전부 간 뒤, 평편한 바닥면에 차음재를 고르게 시공했습니다. 세세한 작업들로 빼듯한 공기에 무리를 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막상 마무리된 내부를 보니 뿌듯하기만 합니다.” 적어도 내 집에서는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편안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싶었다는 것이 과천푸르지오씨밋 현장 직원들의 마음이다.

공사의 까다로움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평면 옵션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거의 한세대 한세대를 새로 짓는 듯했고, 각 블록별로 설계된 커뮤니티 시설에는 고급 스포츠 센터를 방불케 하는 고효율, 고품질의 마감재를 적용했다. 금속, 유리, 돌 등 고급소재를 사용해 마감함으로써 공사 난이도는 최상이었지만, 최상의 고품격 아파트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31개월의 공사 기간 동안 흘린 땀방울이 이제 그 결실을 맺었다. 푸르지오 씨밋의 자부심에 직원들의 노력이 더해져 탄생한 또 하나의 명작이다. 힘들었던 지난날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며 과천의 눈부실 미래를 함께할 과천 푸르지오 씨밋의 화려한 명성을 기대해본다.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스카이_커뮤니티까지 #안전하게 #안전팀



#자연열_입주민_품안에 #조경팀 #토목팀 #품질팀



#섬세한 기술과 #높은 효율로 #기전팀



#과천의_눈부신_미래와 #과천_푸르지오_씨밋이 #함께



#과천의_랜드마크를_위하여 #공사팀



#프리미엄_거주공간으로_오세요 #공무/관리팀

오늘의
경험은
내일의
디딤돌이
되어



조달본부 이호진 본부장

모든 일은 사람으로 시작해
사람으로 끝난다.
전국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다수의
업무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건설회사에서는 더욱 그렇다.
특히 수많은 협력사들과 어떤
파트너십을 발휘하느냐는 그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조달본부를 이끄는
이호진 본부장이 대우건설
조달업무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과
정착에 나선다.

공정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조달 빅데이터
대우건설과 함께하는 협력회사 수만 해도 약 3,000개.
협력회사들과의 파트너십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느 과정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우수한 업체를 찾아
공정한 장을 열고, 선정된 그들과 머리를 맞대고
품질을 높여 가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모색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까지. 이 전 과정을 보다 정밀하게 관리하기
위해 대우건설 조달본부는 2020년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시행한다. 회사 내 모든 협력회사 계약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하고 이를 위해 본부와 조직원의
조달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본부의 목표다. 2019년
연말 조달본부에 부임해 본부를 이끌어 가고 있는
이호진 본부장은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무리 검토에 한창이다.

“협력회사와의 계약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입찰사 선정방법의 랜덤화로 기울어지지 않은 편평한
운동장에서 협력회사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모든 협력회사를 1년에 두 번 평가하여 입찰과
현장평가를 반영하는 선순환을 통해 당사와 협력회사
간의 win-win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사내에 안착시키고
보완해 나가는 것에 집중하려 합니다. 또한, 구매
분야에서는 우리 회사가 수요자 입장에서 다수의
공급자를 상대로 Bargaining Power를 확보하기
위해 Action Plan과 Mile Stone를 수립하고 있으며,
공급자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 급변하는 조달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Data Base에 근거한
조달시스템 구축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된 과정이 하나하나 완성될 때 우리 회사는
머지않아 Global Top 20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현장은 크고 작은 문제들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로 인해 주저하기 보다는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
여기고 도전하는 정신이 필요하죠.”

현장에서의 몰입을 통해 얻은 지혜

조달본부의 2020년 비전과 목표 그리고 실행방안을 설명하는 이호진 본부장의 눈이 빛난다. 그는 신입사원 시절부터 20년을 내리 현장에서 보내고 본사로 들어와 11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전국을 넘어 해외를 오가며 그야말로 맨몸으로 부딪히며 달려온 열정의 시간이다. 그는 현장에서 얻은 지혜를 디딤돌 삼아 30년을 보낼 수 있었다고 말한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하는 업무는 크고 작은 문제들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로 인해 주저하기보다는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 여기고 도전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미련이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이 현장이든 본사든 장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가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은 서울 구의 정수장 현장이다. “부장 1년 차에 소장으로 부임했어요. 규모는 물론 계약금액이 당시 본부 내에서도 매우 큰 공사였고, 서울시 6개 구에 정수물을 차질 없이 공급하는 시설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부터 발주처 승인을 비롯해 현장 VE 등 넘어야 할 문제들이 산처럼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현장 바로 뒤에 아차산이 있었는데, 머릿속이 복잡할 때면 가끔 그곳에 올라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 기억나네요. 꼬여가고 있는 실시설계 승인 문제, 원가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등 몇 가지 고민을 안고 올라가서 한강과 그 너머를 바라보면서 차근차근 문제를 복기하고 해법을 찾곤 했어요.”

이 본부장은 스스로를 관계 중심이 아닌, 건조한 업무 중심형이라 말한다. “프로젝트마다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삼아요. 다들 너무 열심히 그리고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와 해결책을 찾아내는 끈기를 조직원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 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직원들을 서운하게 할 때도 있어요. 대우건설이 3,000여 개의 협력사와 건강하고 발전적인 관계를 이루어 나가듯 우리 직원들 역시 조직의 성장과 함께 더욱 발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배돌보기

선배 탐구생활

DAEWOO E&C MAGAZINE
2020 3 + 4

PROFILE

1963^년 4월 29^{일생}

1989^년 입사

O형

FAVORITE

요즘 가장 빠져있는 회사 밖에서의 일은?

조금씩 연습해 온 클래식
기타연주. 아직은 연감생심
이지만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을 연주해 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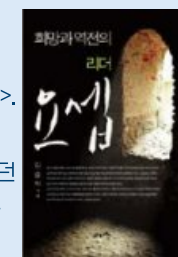
요즘 가장 즐겨 듣는 노래는?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
확신 가득한 목소리와 가사가 내 마음에
울림을 준다.



무인도에 가져가고 싶은 책 1권은?

<희망과 역전의 리더 요셉>.
20대의 젊은 나이에
수많은 역경을 헤쳐 나갔던
그를 거울 삼아 내 모습을
비추어보곤 한다.



자주 가거나 좋아하는 공간이 있다면?

서울 구의동에 위치한 아차산. 10여년 전의
현장소장 시절을 떠올릴 수 있는 곳이다.



PRINCIPLE



일기장 첫 페이지에 적고 싶은 말은?

삼인행 필유야사.
세 사람이 길을 함께 걸으면
그 중에 반드시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는 뜻이다. 항상 주변 사람들을
잘 살펴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삼가려고 한다.

PRECIOUS THINGS

지갑이나 주머니에 꼭 챙겨 다니는 나만의 필수품은?

가족사진. 지갑에
항상 꽂혀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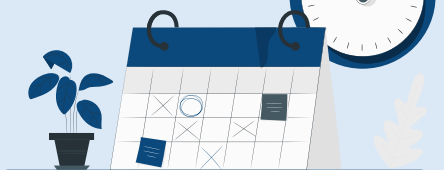
주변에서 이해해줬으면 하는 나의 모습은?

관계보다는 일 위주로 생각하는 태도.
가족에게도, 후배들에게도
미안할 따름이다.

일주일 중 내가 가장 무장해제되는 순간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전.
몸과 마음의 긴장이 가장 풀리는 시간이다.

Friday Night
— Saturday
Morning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랑말랑’한 것은?

단어가 나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웃음). 물 빠진 갯벌 위를 맨발로 걸을 때
기분이 참 좋다.



색색의
문명을 보고

대자연의
숨소리를 듣는 곳

ZAMBIA

아프리카 대륙 중앙 남부에 위치한 잠비아. 남아프리카의 중심부에서 많은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공유하고 있는 문명도 다양하다. 세계에서 가장 긴 폭포인 빅토리아 폭포를 품고 있는 잠비아는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줄기 이외에도 누릴 것이 많다. 남동부로 가면 원시의 생명과 활기를 띤 색색의 리빙스톤 시내가 펼쳐지고, 남부로 향하면 사자와 치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사파리가 기다리고 있다.



Hello Stranger, 색으로 인사하는 잠비아

리빙스턴은 잠비아 여행의 중심지다. 잠베지강을 사이에 두고 잠비아와 짐바브웨 두 나라에 걸쳐 그 유명한 빅토리아 폭포가 있다. 원주민들은 이 폭포를 ‘모시 오아 툰아(Mosi-oa-Tunya)’라고 부른다. 천둥 치는 연기라는 뜻이다. 헬기를 타고 빅토리아 폭포 위를 날며 바라보는 아프리카 평원 이외에도 리빙스턴은 시각적으로 많은 매력을 가진 도시다. 한때 잠비아의 수도였던 리빙스턴은 시내 중심가라고 해도 꽤 한산한 편이다. 여기에도 패스트푸드점이 있다. ‘잠비아의 맥도날드’라 불리는 ‘헝그리 라이언’이다. 한산한 동네 분위기와 달리, 그곳 사람들의 옷차림은 마치 누가 더 화려한지 경쟁이라도 하듯 빨간색, 보라색, 노란색, 연두색 등으로 다양하다. 헝그리 라이언 옆의 구둣가게는 철문 위에 형형색색의 페인트로 몇 가지 구두를 그려 놓았다. 흔히 ‘검은 대륙’이라 불리는 아프리카의 잠비아는 검지 않고 컬러풀하다. 헝그리 라이언 근처에 있는 담브와 시장(Dambwa Market) 역시 전 세계 여행객들이 모여드는 관광지가 아닌 리빙스턴의 일상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시장에는 당연히 흑인들뿐이다. 주민들은 특별한 색채 감각과 다양한 패턴의 옷을 자랑한다. 야생과 문명의 경계에서 펼쳐진 리빙스턴만의 빼어난 감각이다. 리빙스턴의 ‘무쿠니 빅 파이브 사파리(Mukuni Big 5 Safaris)’는 햇빛 아래 황금빛으로 펼쳐지는 사자 갈기와 치타의 등허리를 만질 수 있는 곳이다. 사자, 치타와의 인터랙션(interaction)이 가능한 즉, 사자를 직접 만져볼 수 있다. 이곳의 관리원인 레인저가 말했다. “치타는 세계 쓰다듬어줘야 해요. 겁난다고 살살 만지작거리지 마세요. 치타를 성가시게 할 뿐이에요.” 레인저가 큰 소리로 말을 이어간다. “사자 앞에서는 항상 모여 있어야 해요. 다가갈 때는 뒤쪽에서 갑니다. 사자가 뒤를 돌아보더라도 침착하세요. 여러분이 비명을 지르면 사자는 ‘나랑 놀자고? 그래, 놀아주지!’하고, 여러분의 넓적다리를 덩석 물어버릴 겁니다.” 이곳의 사자들은 우리 안에 갇혀 있지도, 사슬에 묶여 있지도 않다. 레인저가 말한 대로 사자가 앉거나 누우며 방향을 바꿀 때마다 우리도 자리를 옮겼다. 사자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뒤에 있던 우리는 오른쪽으로 우르르 방향을 튼다. 소리를 내면 안 된다니 다들 고요하고 분주하게 오락가락이다.



Livingstone



Mukuni Big 5 Safaris



Chobe National Park

지프를 타고 만나는 ‘동물의 왕국’

조금 더 다양한 동물을 만나보고 싶다면 잠비아의 이웃 나라인 보츠와나 방문을 빼놓을 수 없다. ‘빅 파이브(Big Five: 사자, 코끼리, 표범, 버펄로, 코뿔소)’를 만날 수 있는 초베 국립공원(Chobe National Park)이다. 스와힐리어로 ‘여행’이란 뜻의 사파리는 차를 타고 야생동물을 둘러보는 방식 때문에 ‘게임 드라이브(Game Drive)’라고도 한다. 사륜구동 지프를 타고 평원을 달리거나 강에서 배를 타고 야생동물을 구경한다. 차나 배에서 내릴 수는 없다. 사방이 막힌 지프에 있는 나와 달리, 초베의 동물들은 한가로이 펼쳐진 대지를 거닐었다. 정작 내가 탄 차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 초베의 주인은 사람이 아닌 동물이다. 고요한 초베강 물줄기 너머 그림 같은 수평선이 펼쳐졌다. 건기에는 천 마리 이상의 코끼리들이 모여든다. 인근에서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초베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파리 보트가 강기슭의 코끼리 무리 쪽으로 다가가도 코끼리들은 꿈쩍도 않고 수영을 하거나 몸에 진흙을 바른다. 어미는 새끼를 따라 가만히 자리를 옮기며 새끼를 지킬 뿐이다. 관광객이 사파리를 할 때 가장 보고 싶어 하는 버펄로도 보았다. 코뿔소와 함께 가장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동물이다. 일대일로 맞장을 뜨면 사자조차 쫓아버릴 정도의 맹수가 버펄로다. 그런데 초베에서 만난 버펄로는 사파리 지프 옆을 유유자적한다. 이곳에서는 누구에게도 공격당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마도 만날 수 있다. 낮에는 물속에 있다가 저녁에 밖으로 나와 활동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초베에서 만난 하마는 한낮에도 떼를 지어 들판에서 여유를 누린다. 동물들의 색다른 일상을 만날 수 있는 곳, 아프리카의 잠비아와 보츠와나다.

WRITER



박준
작가, 여행가. 1994년부터 전 세계를 여행하며 <On the Road- 카오산 로드에서 만난 사람들>, <여행자의 미술관> 등 여러 권의 책을 썼다.

FROM ZAMBIA



잠비아에서 온 편지

안녕하세요. 보츠와나교량PJ 현장입니다. 그동안 회사 매체를 통해 보츠와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접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교량으로 연결하고 있는 나라, 잠비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해요.

처음 잠비아에서 느낀 점은 ‘이 나라는 하늘이 참 가깝구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현장이 위치한 곳, 카중굴라(Kazungula)지역이 해발 923m의 고산지대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한국의 하늘보다 조금 더 가깝다고 해요. 하늘이 가깝다고 느낀 또 다른 이유는, 저희 현장이 고원이라 주변에 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넓은 고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신기할 따름입니다. 잠비아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남아프리카에 위치해 있어요. 지역에 따라 열대 혹은 아열대 기후를 가지고 있는데요. 11월부터 3월까지의 우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전체를 건기로 봅니다. 건기에는 비가 오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날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청명한 하늘을 느낄 수 있답니다. 미세먼지 없는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은 잠비아 생활의 큰 장점이기도 하죠. 현장에 근무하면서 좋은 일이 비단 맑은 공기만은 아닌데요. 작년 5월, 저희 현장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4개국의 대통령들이 방문한 적 있었습니다. 4개국 정상인 한 데 모이는 것은 쉽게 잊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행사를 계기로 짐바브웨 측에서 카중굴라 교량과 짐바브웨를 연결하는 접속도로 시공을 추진한다는 현지 보도가 나올 정도로 각국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잠비아도 콩고와 연결하는 교량공사를 우리 쪽에 맡기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기도 했고요. 아프리카에 있다 보면 우리와 타국의 공사 품질이 종종 비교되곤 하는데요, 이런 기분 좋은 소식을 접할 때마다 대우건설의 수준 높은 공사 품질에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보츠와나교량PJ 현장

보츠와나교량PJ는 보츠와나와 잠비아, 두 나라가 정부자금을 출자해 발주한 사업으로, 양국의 국경인 잠베지강(Zambezi River)을 가로지르는 교량과 진입도로를 시공하는 PJ다.

30여 년 전 아프리카에서 공사를 하며 쌓은 신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폭 19m, 길이 926m의 교량 및 687m의 진입도로와 함께 교량을 통과하는 2.143km의 단선철도를 건설하고 있다. 남아프리카의 40년 숙원사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이번 사업은 인접한 4개국의 물류 속도 개선과 경제 발전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의 상징이기도 하다. 다가오는 5월, 공사가 완료되면 남아프리카 일대의 교통 및 물류 인프라를 크게 바꿔놓을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잠비아강은 아프리카에서 네 번째로 긴 강이지만,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유량으로만 따지면 아프리카에서 가장 크다. 래프팅과 카약, 제트스키 등의 수상스포츠와 선셋 크루즈가 유명하다.



원주민들이 부족사회를 기초로 하고 있어 공동체 생활에 익숙하다. 무슨 일이 발생하면 온 마을이 자신의 일처럼 나서서 돕는다.



잠비아는 남반구에 위치해 우리나라와는 계절이 정반대다. 덕분에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를 경험할 수 있다고.

WORK & LIFE



LISTEN TO MY MUSIC

음악만큼 쉽게 우리를 들었다 놔다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신나는 EDM 음악으로 몸속의 숨은 리듬을 깨우는 디제잉,
탄탄한 캐릭터와 스토리가 가슴을 울리는 뮤지컬,
신명나는 음악으로 재미는 물론 운동 효과까지 책임지는 춤트 운동법까지.
긱가를 즐겁게 만들어줄 3+4월의 문화생활을 소개한다.

YO DJ PU M THIS PARTY



뚝뚝뚝뚝, 오늘밤 디제잉을 허하노라

쿵쿵 울리는 음악 소리가
머리부터 발끝을 휘어 감싸는
압구정의 한 디제잉 스튜디오.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 6시,
김광태 과장(발전견적팀)과
김동현 과장(해외토목사업1팀)이 신
나는 EDM이 퍼져
나오는 그 음악의 중심지로
향했다.



발전견적팀
김광태 과장

해외토목사업1팀
김동현 과장

뚝뚝, 디제잉은 처음이라

최근 몇 년간 음악 페스티벌, 힙합 프로그램의
인기와 함께 EDM이 대중에게 친숙한
장르로 자리 잡았다. 특히 신나는 음악으로
함께 분위기를 직접 진두지휘할 수 있는
디제잉이 취미로도 인기가 높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디제잉을 한다는 신조어
'주경아디'가 생겨났을 정도. 평소 힙합과
EDM 등 다양한 음악 장르에 관심 많은
김광태 과장과 '음악은 역시 발라드'라 여기는
김동현 과장이 함께 디제잉 체험에 나섰다.
음악 취향은 조금 달라도 넘치는 흥과 노래에
대한 열정을 함께 나누며 동기애를 쌓아온
그들이다. 디제잉 기본기를 전부 익히려면
3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오늘은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 가볍게 첫발을
디디 보기로 했다.

"음악을 선곡하고 그 곡들의 흐름을
조절하면서 공간의 분위기를 만드는 작업을
디제잉이라고 해요. 일종의 물이꾼 역할을
하는 건데, 음악의 순서를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곡의 일부를 편집해 전혀 다른 음악을
만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많이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디제잉의
기본인 비트매칭, 즉 두 개의 곡이 끊기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잇는 스킬을 배워볼게요."
오늘 원데이 디제잉 클래스를 맡은 강사
김경훈의 말이다.

속도를 밀고 당기는
‘밀당의 기술’이 필요해

이전 곡과 다음 곡의 구조를 파악한 뒤 두 곡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것, 그 후 그 곡들이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비트매칭의 관건이다. 두 가지 이상의 음악을 한 곡처럼 자연스럽게 잇기 위해서는 다른 쪽의 빠르기를 줄이거나 당겨 두 음악의 속도(BPM)를 동일하게 맞추어야 한다. 오늘 사용할 기기는 CDJ. LP판이 필요한 턴테이블 디제잉과는 달리 USB에 곡을 담아 음원을 연결하고 피치와 플래터를 이용해 속도를 조절한다.

“작은 LP판처럼 생긴 걸 플래터라고 해요. 헤드셋을 통해 나오는 음악에 귀를 기울이며 플래터를 조절하세요.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음악이 빨라지고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느려집니다. 한 쪽 귀로는 헤드셋에서 나오는 다음 곡을 듣고, 나머지 귀로는 지금 나오는 곡을 들으면서 두 노래의 템포와 믹싱 타이밍을 맞추는 겁니다. BPM 차이가 큰 곡들을 억지로 통일하려다 보면 음악이 이상해지겠죠. 비트감, 장르, 화음 등을 고려해서 잘 어우러질 만한 음악을 선정해야 해요.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곡을 고르는 감이 생길 거예요.”



몸속의 리듬을 깨우고
마음의 에너지를 올리는

몇 가지 기술을 충분히 익혔다면, 그다음 필요한 것은 혼자만의 시간이다. 전혀 다른 장르의 음악을 한 곡처럼 연결해 듣는 즐거움을 만들고, 익숙한 음악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편집해 색다른 분위기를 전하고, 분위기를 조금씩 고조시켜 결국 모두가 함께 방방 뛰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 모두 디제이의 룩이다.

김동현 과장이 가장 흥미를 느낀 지점 역시 공간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재미다. 사실 오늘 체험에 참여하기 전까지만 해도, EDM은 클럽이나 페스티벌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듣는 장르라는 편견이 있었다고. “여러 사람을 함께 신나게 하는 데는 이만한 장르가 없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확 풀리기도 하고요. 집에 가서 플레이 리스트 좀 바꿔봐야겠어요.”

다양한 음악을 즐겨 듣는 김광태 과장은 기존 음악으로도 나만의 음악을 재탄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꼽았다. “EDM뿐만 아니라 여러 장르의 조합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여러 장르를 섞어보고 싶어요. 음악을 많이 듣는 것뿐만 아니라 색다른 조합을 상상해내는 창의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아들에게 선물하는 척하면서 장비 하나 사면... 아내에게 혼날까요?”

스튜디오를 나서는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어느새 별이 총총 빛난다. 어제와 같은 밤하늘이 조금 더 아름다워 보인다면 그들의 주변을 가득 둘러싼 음표 덕분 아닐까.



헤드셋은 빼딱하게,
두 손은 재빠르게

김광태 과장과 김동현 과장에게 주어진 미션은 준비된 네 개의 비트를 매칭하는 것. 각자 헤드셋을 걸치고 연습을 이어간다. 귀를 쫑긋 세우고 양쪽에서 들리는 음악에 주의를 기울여보지만, 잠깐의 머뭇거림에 그 찰나의 순간이 지나가고 만다. 귀에 익숙하지 않은 노래 속에서 타이밍을 맞추기란 쉽지 않다.

“손이 잘 안 움직여요.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하는데... 음악들의 구성과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잘할 수 있겠어요.” 아쉬움이 반복되는 와중에도 김광태 과장은 리듬에 맞춰 신나게 몸을 움직인다. 턱과 어깨를 흔드는 모습이 ‘퍼포머로서 합격’이라는 강사의 평이 이어진다. “사람들의 흥을 돋우고 분위기를 이끄는 것 역시 디제이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에요. 음악을 만지는 사람이 몰입한 느낌을 주어야 듣는 사람도 더욱 흥이 나거든요. 장비를 만질 때 팔을 크게 움직이거나 조금씩 인상을 쓰는 등 일종의 연기를 하기도 해요.”

김동현 과장 역시 연습에 매진 중이다. “두 곡이 잘 연결되면 정말 짜릿해요. 어느 구간에서 노래를 넘기느냐에 따라 같은 곡들로도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재밌고요. 양쪽 귀로 음악을 듣느라 정신 없기는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여유가 생기겠죠?”

디제잉 초심자를 위한
첫걸음 사전

디깅(Digging)
여러 음악을 듣고 모으는 작업. LP판 기계에서 레코드를 찾는 모습이 땅을 파 무언가를 모으는 행위와 비슷하다는 데서 유래했다. 음악의 시야를 넓히고 다양한 음원을 확보하는 것이 디제잉의 시작이다.

비트매칭(Beat Matching)
음악의 빠르기 즉, BPM(Beat Per Minute)이 각기 다른 곡들을 같은 템포로 맞추는 디제잉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 비트매칭을 익힐 때는 BPM 차이가 10을 넘지 않는 곡들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믹싱(Mixing)
두 개 이상의 곡을 연결하는 작업. 이전 곡 마디의 끝과 다음 곡 마디의 첫 부분을 자연스럽게 잇는 것이 관건이다. 볼륨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은 물론 잘 어우러질 만한 곡을 고르는 센스가 필요하다.

THE PHANTOM OF THE OPERA

스스로 써 내려간 뮤지컬 역사

존재만으로 뮤지컬의 역사가 된 작품. <오페라의 유령>은 뮤지컬의 본고장 영국 웨스트엔드와 전 세계 뮤지컬의 성지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동시에 30년 넘게 연속 공연된 유일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에 브로드웨이 최장기 공연으로 기네스북에 정식 등재되었으며, 2019년 4월에는 브로드웨이 최초로 13,000회 공연을 돌파하며 전 세계 1억 4천만 명을 매혹시킨 자타공인 뮤지컬 레전드의 반열에 올라섰다.

<오페라의 유령>이 시대를 뛰어넘어 지금도 이토록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하지만 명쾌한 이유, 바로 음악과 무대, 그리고 스토리라는 3박자를 완벽하게 갖춘 작품이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배경은 19세기 파리 오페라 하우스다. 흥측한 얼굴을 마스크로 가린 채 오페라 하우스 지하에 숨어 사는 천재음악가 유령과 프리마돈나 크리스틴, 그리고 크리스틴을 사랑하는 귀족 청년 라울의 러브 스토리를 담고 있다.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함께 관객의 가슴을 움켜쥐는 서정적인 음악은 뮤지컬의 아버지 앤드루 로이드 웨버¹의 솜씨다. 그가 작곡한 뮤지컬 넘버 '오페라의 유령(The Phantom of the Opera)', '밤의 노래(The Music of the Night)', '바람은 그것뿐(All I Ask of)' 등 매력적인 선율이 관객들을 황홀하고 신비한 세계로 인도한다.

<오페라의 유령> 관람 전 뮤지컬 알쓸신잡

1 뮤지컬의 아버지, 앤드루 로이드 웨버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라면, <오페라의 유령>을 만든 앤드루 로이드 웨버는 뮤지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에비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캣츠> <오페라의 유령> <선셋 대로> 등 그야말로 '최고'의 작품을 연달아 만들어내며 브로드웨이를 홀로 장악하다시피 했다. 우리가 아까는 많은 뮤지컬 히트 송 중 알고 보면 그의 작품이 놀랄 만큼 많다.

1948년 영국 캔싱턴에서 태어나 음악을 가까이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 그는 불과 7살에 작곡 실력을 보이며 천재성을 입증했다. 1965년 17세에 '절친' 팀 라이스의 가사에 곡을 붙인 음악극 <우리들의 유사향(The Like of You)>을 만들었고, 이를 계기로 둘은 황금 콤비로 활동하며 일련의 빅히트 뮤지컬을 배출한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웨버가 불과 22세에 만든 작품이다. 수많은 명작 중 본인이 가장 애착을 가진 작품이라고 밝힐 만큼 <오페라의 유령>에는 웨버의 남다른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프레드릭 포사이드와 함께 소설 <오페라의 유령 2>를 출간하는가 하면, 영화에 자신의 이름을 걸어들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영화의 영문 제목은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오페라의 유령>이다.

불멸의 명작 레전드의 귀환

신화가 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이 역대 최대 규모의 월드투어 공연으로 한국을 찾아온다. 국내에서는 2012년 25주년 기념 내한 공연 이후, 약 7년 만에 선보이는 오리지널 공연이다.

<오페라의 유령>이 세운 놀라운 기록

- 2001년 — 국내 라이선스 초연 24 만 관객 동원
- 2005년 — 오리지널팀 내한 19 만 관객 동원
- 2009년 — 두 번째 한국어 공연 11개월 동안 33 만 관객 동원
- 2012년 — 25주년 기념 내한공연 누적 100 만 관객 돌파



가장무도회, 지하 호수 장면... 무대 예술의 향연

<오페라의 유령>이 세계 5대 뮤지컬²로 손꼽히는 이유는 거장들이 펼치는 무대 예술의 향연 덕분이기도 하다. 특별히 이번 월드투어를 위해서 새롭게 제작된 거대한 세트들 선보일 예정인데, 무대 디자이너 마리아 비온스는 고증을 통해 완벽하게 파리 오페라 하우스 세트를 재현했다는 전언이다. 물론 공연 도중 천장에서 무대 위로 곤두박질치며 공연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하는 거대 상들리에도 여전히 만날 수 있다. 또한 무대를 가득 채우는 자욱한 안개 사이로 유령과 크리스틴을 태운 나룻배가 등장하는 지하 호수 장면, 화려한 의상이 실 새 없이 무대를 뒤덮는 가장무도회 장면 등에서도 뮤지컬 미술의 정수를 느껴볼 수 있다.

완벽한 무대와 음악, 스토리를 완성시키는 배우들도 역대급이다. 특별히 오리지널 크리에이터가 찾아낸 주역들로

꾸려졌는데 먼저 유령 역은 역대 최연소 유령이자 웨버의 작품에서 6편이나 주역을 맡은 조나단 록스머스가 맡는다. 그는 브로드웨이 월드 어워드에서 남우 주연상을 수상하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2012년, 25주년 기념 내한공연을 성공적으로 이끈 주역 클레어 라이언이 크리스틴 역으로 다시 한번 한국 관객과 만나며, 첫사랑 크리스틴을 잊지 못하는 귀족 청년 라울 역은 브로드웨이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며 연기의 스펙트럼이 넓은 배우로 평가받는 맷 레이시가 맡아 열연을 펼칠 예정이다.

뮤지컬 입문자에게는 레전드 뮤지컬의 매력에 흠뻑 빠져볼 수 있는 기회를, 뮤지컬 마니아에게는 명작 뮤지컬의 진한 감동에 다시금 빠져보는 자리가 될 <오페라의 유령>은 서울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에서 3월 14일부터 6월 27일까지 공연될 예정이다.

<오페라의 유령> 관람 전 뮤지컬 알쓸신잡

2 세계 5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과 함께 세계 5대 뮤지컬로 손꼽히는 작품을 알아보자.

Les Misérables

레 미제라블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뮤지컬로 옮겼다. 젊은이들의 피 끓는 혁명 정신, 노동자와 농민들의 거친 저항정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따뜻한 인간애를 다룬 문학적이며 웅장한 오페라형 뮤지컬이다.

CATS

캣츠

세계적인 영국 시인 T. S. 엘리엇의 시 ‘웃기는 고양이 아가씨의 행장기’를 뮤지컬로 만든 작품이다. 의인화한 고양이의 음악과 춤, 코믹한 전개가 일품이라는 평이다. 1997년 5월, 무려 6,138회라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사상 최장기 공연 기록을 세웠다.

Miss Saigon

미스 사이공

<레 미제라블>의 알랭 부빌과 클로드 미셸 손버그 콤비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걸작이다. 푸치니의 오페라 <라비 부안>의 스토리를 각색, 베트남 처녀와 미군 병사의 안타까운 사랑과 비극을 그렸다.

JESUS CHRIST SUPERSTAR

지저스 크리스티스트 슈퍼스타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작곡한 작품으로, 예수 생애 마지막 일주일간 이야기를 다룬다. 이 작품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뮤지컬 열풍이 일어났고, 지금까지 그 신화가 계속되는 고전작이다.



어플퓨터

춤

코로나19의 여파로 헬스장이나 체육관, 수영장 등 공용 운동시설 방문을 꺼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집에서 운동을 하는 홈 트레이닝, 줄여서 ‘홈트’가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집에서 막상 혼자 운동을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무엇보다 금방 지루해지기 때문에 중도 포기를 선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최근 뜨고 있는 것이 신명 나는 음악과 함께 춤을 추면서 홈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춤트’다. 재미는 물론 운동 효과를 배로 끌어 올려주는 다양한 춤트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자.



1 게임, 리듬을 취해요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 같은 게임기가 있는 가정이라면, 한번쯤 아이들이 리듬 액션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게임의 기본적인 방식은 선곡한 음악에 맞춰 게임 속 댄서의 동작을 보며 따라 하는 것. 그 가운데 ‘저스트 댄스’는 가장 대표적인 리듬 액션 게임 중 하나다. 별도의 게임기 없이도 핸드폰과 인터넷이 연결된 노트북(컴퓨터)만 있다면 바로 실행이 가능해 진입 장벽이 낮다. 핸드폰을 오른손에 쥐고 동작에 맞춰 춤을 추면, 핸드폰이 리모컨이 되어 동작을 감지해 점수를 매긴다. 세계 각국에서 입장한 4명의 선수가 겨루고, 한 곡을 끝내고 나면 쌓은 점수를 토대로 등수가 매겨진다.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지만 댄스 게임인 만큼 처음에는 생각보다 어렵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한두 번 따라 하다 보면 동작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금방 배울 수 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등 K팝도 플레이 리스트에 추가되어 있어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GAME

운동 음악 사용법

01 — 힘 나는 운동 음악을 골라라
평소에도 들으면 힘이 나는 곡을 듣고 운동하기를 2주간 반복 훈련한다. 자연스럽게 세뇌 학습이 되어 운동 효과를 높여준다.

02 — 동기부여가 되는 곡을 찾아라
곡이 담고 있는 의미도 중요하다. 한 연구에서도 달리기 선수들이 템포에 상관없이 동기부여가 되는 노래를 들을 때 더 빨리 뛰었다고 밝혀진 바 있다.

03 — 운동 흐름에 맞는 플레이 리스트
랜덤으로 음악을 듣는 것보다 플레이 리스트를 짜는 것이 좋다. 이를테면 평소 뛰기 시작한 지 25분 정도에 에너지가 떨어진다면 그쯤에 가장 활기찬 노래를 배치하는 것.

04 — 볼륨을 높이지 말고 맥박을 높여라
볼륨이 너무 커도 운동 효과는 감소한다. 시끄러운 소리에 오래 노출되면 근력이 약해진다는 사실 역시 입증되었다. 몸에 산소가 공급될 때 귀가 더 예민해진다.

05 — 운동 후 마무리 음악은 차분하게
한 연구에 따르면 운동 후 음악을 듣는 선수들은 듣지 않는 선수들보다 심박수를 낮추기 위해 더 오랫동안 걸어 다녔다고 한다. 운동 후 진정을 위한 음악은 차분하고 느려야 한다.

LEVEL UP: 링 피트 어드벤처

저스트 댄스로 워밍업을 했다면, 닌텐도 스위치용 피트니스 게임 ‘링 피트 어드벤처’에 도전해보자. 링 피트 어드벤처를 주문하면 게임 소프트 외에도 양손으로 잡고 조작할 수 있는 장비 ‘링콘’과 왼쪽 허벅지에 부착해 하체 운동 움직임을 인식하는 ‘레그 스트랩’이 함께 온다. 여기에 닌텐도 스위치의 조이콘을 각각 부착해준다. 이후 플레이어의 성별, 나이, 평소 운동량과 원하는 운동 강도 등을 입력한다. 해당 정보를 토대로 플레이어에게 맞는 운동 강도와 방법을 구성, 개개인별 맞춤 운동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링 피트 어드벤처는 여타 다른 피트니스 게임에 비해 다음 스토리가 궁금해지는 어드벤처 요소를 게임 속에 녹여내기 때문에 더욱 흥미진진하다. 악당 도래고를 뒤흔트는 스토리로 몰입도를 높여 지속적으로 운동을 시키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이동과 전투를 유저가 피트니스 동작을 해야만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 The Fitness Marshall

2 춤트를 유튜브로 배웠어요

유튜브로 모든 것을 보고 배우는 시대. 춤트도 예외가 아니다. 다양한 댄스 다이어트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 가장 화제가 된 것이 바로 ‘**피트니스 마샬**’이다.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개그우먼 박나래가 실제로 집에서 이 영상을 보고 따라 하는 모습이 전파를 타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댄스 다이어트 콘텐츠를 주로 다루는 피트니스 마샬은 전 세계적으로 무려 181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명 유튜브 채널이다. 누구나 알만한 유명 팝송부터 방탄소년단 음악까지 다양한 영상이 있어 고르는 재미가 쏠쏠하다. 몸치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마샬이 친절하게 동작을 설명해준다. 하지만 그냥 춤이라고 쉽게 봤다가는 큰코다친다. 러닝처럼 격한 유산소 운동 못지않은 운동량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따라 하고 나면 숨이 몰아치고 이마에서는 땀이 빗방울처럼 떨어진다. <나 혼자 산다>에서도 강도 높은 격한 안무 동작을 소화하느라 지쳐 있던 박나래의 ‘버퍼링 영상’만 봐도 운동 강도를 가늠할 수 있다.

LEVEL UP: 조식앤바비의

YOUTUBE

‘2주에 10kg 빠지는 춤’이라는 솔깃한 제목으로 재생 버튼을 누르게 하는 영상이 있다. 중독성 있는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는 국내 유튜브 채널 조식앤바비의 영상이다. 그중에서도 ‘2주 만에 10kg 빠기 - Mo Bounce’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1,000만 건을 돌파해 화제를 낳았다. 옆집 청년들 같은 위화감 없는 친근한 외모, 시종일관 발랄한 긍정 에너지도 이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견인했다. 조식앤바비의 모토는 ‘건강하고 재밌게 춤으로 다이어트해요’이다. 운동자의 실제 경험담이 반영되었다.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한 다양한 다이어트 후유증(섭식장애와 탈모, 저혈압 등)으로 2년 동안 시달렸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건강한 다이어트를 전파하고 싶어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이어트 댄스로 2주 동안 10kg를 감량한 적이 있다고 하니, 속은 샘 치고 일단 한번 따라 해보자.



© Josh & Bamui

3 우리 홈트가 스마트해졌어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홈트도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다. 185가지 이상의 운동 방법을 알려주는 나이키의 ‘나이키 트레이닝 클라우드’, 일상 속 동작에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웨이크 아웃’ 등 다양한 홈트 앱이 선보여지고 있는 상황. 그중 ‘**사운드 짐**’은 스트레칭, 코어 운동, 요가, 필라테스 등 20여 가지의 프로그램에서 유명 전문 트레이너들이 만든 약 200여 가지의 트레이닝 콘텐츠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앱을 플레이하면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와 피트니스센터에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 이 배경음악은 운동의 분위기와 강도에 따라 특별히 선별된 것들이라고 한다. 또한 헬스장에서 마치 1:1 PT를 받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그 이유는 음악과 함께 흘러나오는 실제 트레이너의 목소리 때문이다. 동작마다 “호흡하세요” “엉덩이가 처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와 같이 운동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를 트레이너의 목소리로 짚어준다. 앱 이용 가격은 1개월 무료 체험 후 월 2만원이다.



APPS



LEVEL UP: 스마트홈트

카카오VX의 ‘스마트홈트’는 AI 기술 기반의 홈 트레이닝 서비스다. 단순히 트레이너의 동작을 보고 따라 하는 것을 넘어 AI가 실시간으로 자세를 교정해준다. 화면을 보고 트레이너의 동작을 보고 따라 할 때 ‘AI 코치’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이용자의 자세를 분석해 교정해주는 식이다. 운동이 끝나면 신체 부위별 운동 시간, 소모 칼로리, 동작별 정확도 등을 자동 분석해준다. 손연재(리듬체조 동작), 양치승(근력운동), 황아영(요가), 김동은(필라테스) 등 유명 선수와 트레이너들의 전문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4개 각도로 촬영한 전문가의 운동 영상을 한 화면으로 볼 수 있는 ‘멀티뷰영상’과 360도로 정확한 자세를 볼 수 있는 ‘AR 자세보기’ 등의 기능도 제공한다. 스마트홈트는 스마트폰 앱 기반으로 제공되지만, TV로 화면을 공유해주는 미러캐스트 기능을 지원해 더 큰 화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20년 경영전략 워크숍 개최

2020년 경영전략 워크숍이 지난 1월 31일 푸르지오 아트홀에서 개최됐다. 올해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본부별 핵심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2020년 회사의 경영 현황과 대응방안 수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사업 개척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지난 2월 4일, 회사는 방산 및 생활안전 사업 분야 특화기업인 SG생활안전과 신사업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적 사업제휴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체결을 통해 회사는 공공기관 내 공기정화 및 내진보강 솔루션 제공, 산업시설용 안전강화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로써 신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장성푸르지오현장 준공

지난 1월 29일, 장성푸르지오현장이 포항시청으로부터 사용검사 승인을 받았다. 경북 포항시 장성동에 위치한 이번 현장은 지하 2층-지상 최고 30층, 11개 동 아파트 총 1,500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했다.



안산라프리모현장 준공

지난 1월 29일, 안산라프리모현장이 안산시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이번 현장은 군자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지하 3층-지상 35층 21개동, 아파트 총 2,017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했다.



의왕푸르지오포레움현장 준공

지난 2월 3일, 의왕푸르지오포레움현장이 의왕시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다. 경기도 의왕시 삼동 일대에 위치한 이번 현장은 지하 2층-지상 24층 8개 동, 아파트 총 610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했다.



동탄레이크자연앤푸르지오현장 준공

지난 2월 21일, 동탄레이크자연앤푸르지오현장이 화성시청으로부터 사용검사 승인을 받았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에 위치한 이번 현장은 지하 1층-지상 최고 25층 8개동, 아파트 총 7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했다.



베트남 스타레이크시티 투자개발사업 추진

회사는 베트남 스타레이크시티에서 국내 금융기관과 함께 직접 투자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지하 2층~지상 35층 2개 동 규모에 호텔과 서비스 레지던스, 오피스, 리테일 등 복합 빌딩을 건설하는 이번 사업은 국내 금융기관이 베트남 대형부동산개발 사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최초의 사례다.



푸르지오,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

회사의 아파트 브랜드인 푸르지오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IF디자인 어워드 2020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디자인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평가받는 상이다. 푸르지오는 지난해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B뿐만 아니라 아파트 외관, 조경, 커뮤니티 시설 등 상품 전반적인 혁신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라크침매터널현장 기공식 개최

지난 2월 9일, 이라크침매터널현장의 기공식을 개최하며, 중동 최초의 침매터널 공사의 착공을 알리고 본선계약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념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사업은 이라크 움카스르(Umm Qasr)지역과 알포(Al Faw) 지역을 잇는 침매터널 합체를 제작하기 위한 제작장을 조성하는 공사로, 공사기간은 20개월이다.



일산에듀포레푸르지오현장,

경기도 우수 공동주택 건설 유공 표창 수상

일산에듀포레푸르지오현장이 경기도청으로부터 수여되는 '경기도 우수 공동주택 건설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실시한 184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 이번 시상에서 현장은 우수 시공사, 감리자, 개인 유공자 등 총 3개 부분에서 수상했다.



2020년 신입사원, CEO와의 대화

지난 2월 3일, 인재원에서 2020년 신입사원 130명을 대상으로 한 'CEO와의 대화&한마음의 장'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서 신입사원들은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고 회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핵심가치 내재화를 위한 팀 프로젝트 발표회 및 우수작 시상도 진행됐다.



오룡 에듀포레 푸르지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지난 2월 6일, 회사는 전남 무안군과 오룡에듀포레 푸르지오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단지 내 어린이집은 회사가 시공하여 20년간 무상임대 조건으로 무안군이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회사는 입주민 만족도 향상 및 공공 보육 환경 개선에 일조할 예정이다.



1등
애플 에어팟



이지연(세운푸르지오헤리티지 현장 이운달 부장)

‘너를 다시 불러본다, 설렘’ 기사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현재 저도 순간순간 찾아오는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매뉴얼을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칼럼을 읽은 후 ‘자기 자신에게 편지쓰기’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게 되었습니다. 일가장에 제 생각을 털어놓고 나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곤 합니다. 마음에 특히 와닿았던 다른 구절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내 능력을 쉽게 규정하지 말자’와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라’는 말은 저에게 앞으로도 큰 도움이 될 조언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열심히 가족을 위한는 아뵘! 사랑해♡



2등
백화점상품권 5만 원권



토목기술팀 강휘량 사원

‘Theme Vision’ 칼럼을 읽으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려는 노력이 건설업에도 불어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드론을 건설현장에 최초로 적용했다는 점도 놀라운데, 개인의 취미와 열정이 회사에 기여한 사실 또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기술이 활발하게 적용되어 변화하는 건설 산업을 선도하는 대우건설이 되면 좋겠습니다.



공정설계팀 조아라 대리

‘현장STAR그램’ 칼럼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는 부모님께서 분양받으신 아파트라 저에게도 뜻깊은 현장입니다. 사전점검 행사에도 참여했었는데, 부모님께서 매우 행복해하셔서 참 뿌듯했어요. 현장 직원분들!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에서 우리 가족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3등
기프트콘 2만 원 상당

한빛3.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공사PJ 채원기 대리

초심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 재미있었습니다. 신입사원 시절 나를 두근거리게 했던 첫 출근도 상기시키고, 맡은 업무에 있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냈을 때 또 한 번 심장이 뼉을 느꼈습니다. 이번 설문을 통해 직원들과 제 마음을 확인, 비교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해외토목사업1팀 오용택 차장

CEO 신년사 및 경영진 신년 메시지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대우건설의 각 하위 조직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지 큰 청사진을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 또한 본부 목표인 Turn Around의 원년을 이루기 위해 초심을 유지해 본부의 이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자는 각오를 다집니다.

해외법무팀 최진현 변호사

신입사원들의 사진과 봉사활동 현장을 보면서 그 시절 내 꿈들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지금 나는 그때의 꿈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대우건설이 신입사원들의 봉사활동 같은 사회활동을 통해, 진정한 Build Together를 실현하는 기업이 되기를 꿈꿔봅니다.



<호랑이>(2019)



<또 다른 비상>(2019)



<풍경길...꿈꾸다>(2018)



최월자 화백

누구에게도 늦은 시작은 없다고

최월자 화백은 예술여섯살이 되던 해 처음 붓을 잡았다. 마음속으로만 품어오던 그림에 대한 애정이 그녀를 집 근처 문화센터로 이끈 게 시작이었다. 그곳에서 연필화와 유화를 배웠다. 그리고 자연을 그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에 더욱 깊은 평안과 위안이 깃들었다. 빛에 따라 시시각각 모습을 바꾸는 자연의 빛깔과 그곳을 오가는 동물들을 바라보고 그 모습을 캔버스 위로 옮기는 것이 일상이 됐다. 2년 뒤 대한민국미술대전(국전)에 입선하며 등단했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 6년이 흐른 지금은 다수의 전국공모전에 이름을 올리고 국내외 전시에 초대되며 그림을 통해 여러 사람을 만나는 삶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에서 다섯 번째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엄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아들, 사업지원단 오민석 과장의 응원도 큰 힘이 됐다. 그녀는 오늘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 내가 태어나 가장 잘한 일이 아닌가’ 싶을 만큼의 열정과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다. 누군가의 마음에 잠시나마의 여유를 전하는 그림을 그리길 바라면서 말이다.

<대우건설인>에 참여해주세요

참여해주신 독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한층 성장한 <대우건설인>은 다양한 소식과 정보로 독자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알찬 사보를 만드는 힘이 된다는 거 아시죠? 사보 참여는 우측 QR코드와 담당자 문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 커뮤니케이션팀 김민정 대리
minjung.kim@daewooenc.com
02-2288-3297



응모 방법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좌측 QR코드를 스마트폰의 QR리더기로 스캔하시면 QR코드에 내장된 다양한 정보가 바로 실행됩니다. 또는 주소창에 모바일 사보 주소(m.dwconstin.com)를 입력해 접속하셔도 됩니다.



이번 호 선물

1등—1명 전통 마사지건

2등—2명 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

3등—3명 기프트콘 2만원 상당